

La Comédiathèque

마당 건너편 창문

Jean-Pierre Martinez

comediatheque.net

이 연극의 대본은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또는 아마추어 극단에 의한 모든 공개 공연은 작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장-피에르 마르티네즈(Jean-Pierre Martinez)와 연락하여 그의 작품 중 하나를 공연하기 위한 허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comediatheque.net/>

마당 건너편 창문

(The window across the courtyard)

장-피에르 마르티네즈

Jean-Pierre Martinez

자살을 결심한 한 노년의 소설가에게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한 젊은 여성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방문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

등장인물

알렉상드르

매디슨

© La Comédiathèque

파리 아파트의 거실. 보헤미안 분위기. 작은 책상 위에는 낡은 타자기와 몇 개의 서류철이 놓여 있다. 60 대 혹은 그 이상의 작가 알렉상드르는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등장하며, 한 손에 올라미가 묶인 밧줄을 들고 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밧줄을 걸 곳을 찾는 듯 의자 위로 올라간다.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의자에서 내려와 피곤한 한숨을 쉬며 책상에 앉는다. 서랍을 열어 담배 한 갑을 꺼내더니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문다. 그러나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고 다시 책상 위에 내려놓는다. 그는 서랍에서 총을 꺼내 들고 한참 동안 그 무기를 바라본다. 그때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린다. 생각에 잠겨 있던 그는 듣지 못한다. 그는 총구를 자신의 관자놀이에 댄다. 노크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다시 들린다. 그는 여전히 듣지 못한다. 방아쇠를 당길까 말까 망설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눈을 감는다... 바로 그때, 그의 앞에 젊은 여자가 나타난다. 그녀는 매디슨,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학생이며,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매디슨 (소리치며) - 안 돼요!

(깜짝 놀란 알렉상드르는 벌떡 일어나 총을 매디슨에게 겨눈다.)

알렉상드르 -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죽는 거야!

매디슨 - 제발 쏘지 마세요!

알렉상드르 - 손 들어!

(젊은 여자는 즉시 두 손을 든다.)

매디슨 - 진정하세요. 보시다시피 저는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 제발 총을 내려놓으세요.

(그녀가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음을 깨달은 알렉상드르는 총을 내린다.)

알렉상드르 -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지?

매디슨 - 다 설명할게요... 잠깐 숨 좀 고르고요...

알렉상드르 - 하지만 당신 제정신이야?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다고!

매디슨 - 죄송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알렉상드르 - 그래서 그걸 내 집에 들어오라는 초대장으로 생각한 건가...?

매디슨 - 아니, 하지만...

알렉상드르 - 뭐가 필요한 거야? 강도라도 하려는 건가? 여기에는 귀중한 거 하나도 없어, 믿어도 돼.

매디슨 - 전 당신 이웃이에요.

알렉상드르 - 옆집 이웃? 그 집은 80 살 노인이 살잖아...

매디슨 - 마당 건너편 이웃이에요... (상상의 창문을 가리키며) 저기 창문 보이시죠? 그게 제 집이에요.

알렉상드르 - 마당 건너편? 몇 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매디슨 - 이제는 아니에요.

알렉상드르 - 좋아, 그래서?

매디슨 - 제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혹시 보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애도 초대받지 않고 들어왔다면요...

알렉상드르 - 아니, 보지 못했어. 보아하니 네 고양이는 너보다 더 예의가 바르군...

(매디슨은 매우 안타까워 보인다.)

매디슨 - 이틀째 사라졌어요. 동네 곳곳에 이름이랑 사진을 붙여놨는데, 못 보셨나요?

알렉상드르 - 나 잘 안 나가고... 그런 광고는 전혀 보지 않아. 게다가 고양이를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매디슨이 방 안으로 몇 걸음 들어온다.)

매디슨 - 토푸! 토푸!

알렉상드르 - 그렇게 소리치는 게 무슨 일이야? 미쳤어?

매디슨 - 이름이 토푸예요.

알렉상드르 - 네 고양이 이름이 토푸라고? 농담하는 거겠지...

매디슨 - 전혀 아니에요. 왜요?

알렉상드르 - 좋아, 네 고양이 이름이 토푸고, 이틀 동안 집에 안 돌아왔다. 그렇게 큰일은 아니잖아?

매디슨 - 당연히 큰일이예요! 빨리 찾지 않으면 애가 죽을 거라고요... 실내에서만 지내는 고양이인데, 야생에서 살 수 없어요...

알렉상드르 - 그거 참 안됐군. 내가 어릴 때 고양이는 시골에서 살았거나, 많아야 큰 정원에서 살았어. 쥐 잡으러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배가 고플 때만 집으로 와서 밥 먹고, 쓰다듬어 달라고 하다가 소파에서 잠들곤 했지...

매디슨 - 네, 그런데 이 고양이는 쥐를 안 먹어요. 채식주의자거든요.

알렉상드르 - 뭐라고?

매디슨 - 저도 고기를 안 먹고, 제 고양이도 안 먹어요.

알렉상드르 - 그럼 뭘 먹는데?

매디슨 - 키블! 채식 기반 키블이에요, 저처럼요.

알렉상드르 - 너도 키블을 먹는 거야?

매디슨 - 가끔이요, 네. 물론 고양이 키블은 아니고요.

알렉상드르 - 채식 고양이라니...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 그래서 이름이 '토푸'인가?

매디슨 - 네... 그리고 약간 이상하기도 해서요.

알렉상드르 - 그리고 당연히 고기를 안 먹는 건 그 고양이의 개인적인 선택이라는 거겠지...?

매디슨 - 글썄요, 불만을 제기한 적은 없어요, 확실히요.

알렉상드르 - 그럼 이제 서커스에 있는 호랑이랑 사자도 채식 키블을 먹는다고 생각하나?

매디슨 -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서커스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거 반대예요.

알렉상드르 - 하지만 실내 고양이는 반대하지 않나 보군...

매디슨 - 당신은 반려동물이 없겠네요.

알렉상드르 - 맞아, 난 반려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싫어. 게다가 길들임이라는 개념도 싫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나 스스로는 야생을 유지했지...

(그녀는 전혀 겁먹지 않고 방을 둘러본다.)

매디슨 - 그래서 제 고양이를 못 보셨다는 거군요?

알렉상드르 - 그래, 네 채식 고양이를 본 적 없어. 그리고 말인데, 이 우스꽝스러운 대화도 이쯤에서 끝났으면 좋겠군.

(갑자기 그녀가 몸을 떠난다.)

매디슨 - 조용히 하세요!

알렉상드르 - 뭐라고?

매디슨 - 방금 고양이 울음소리 못 들었어요?

알렉상드르 - 고양이 울음소리? 아니, 전혀 못 들었어. 근데 있잖아, 요즘 귀가 좀 멍멍해지기 시작했거든. 너도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게 장점이 될 때도 있거든. 특히 시끄러운 이웃이 있을 때 말이지...

매디슨 - 전 시끄럽게 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실 한 달 넘게 바로 당신 집 맞은편에 살고 있었는데, 당신은 여기가 아직도 빈집인 줄 알았잖아요.

알렉상드르 - 그래, 네가 있는지 몰랐던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군. 그러니 더 할 말이 없으면, 난 내 할 일을 해야 하니 고양이 찾으러 가보는 게 어떨겠나...

매디슨 - 알겠어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알렉상드르 - 고맙군.

(그녀는 떠나는 척하다가 마음을 바꾼다.)

매디슨 - 그런데... 이렇게 두고 가려니 마음이 편치 않네요.

알렉상드르 - 뭐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야...?

매디슨 -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당신은...

알렉상드르 - 내가 뭐...?

매디슨 - 당신이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잖아요, 안 그래요?

알렉상드르 -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매디슨 - 당신 머리에 총을 대고 있었잖아요.

(그는 자신이 아직 손에 들고 있는 총을 보며 놀란다.)

알렉상드르 - 아, 그거... 그래서 뭐?

매디슨 - 음... 당신이 조금... 우울해 보였던 거 맞죠?

알렉상드르 - 우울...? 이봐, 아가씨, 내가 네 나이였을 땐 우리 세대의 모토가 '빨리 살고, 짧게 죽고, 멋진 시체를 남기자'였어. 들어본 적 있나?

매디슨 - 제임스 딘...

알렉상드르 - 우리는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고,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탔으며, 온갖 금지된 물질들을 섭취했지. 그 성분이 뭔지는, 믿어줘, 아무도 몰랐어...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나처럼 살아남은 몇몇 노인들은 백신 맞는 게 두려워서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우울하지 않기를 바라는 건가?

매디슨 - 이해해요...

알렉상드르 - 아니,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네가 불행히도 내 나이까지 살게 된다면 알게 될 거야. 노년은 침몰이야.

매디슨 - 드골...

알렉상드르 - 샤토브리앙이 그보다 먼저 말했지... 하지만 네 말이 맞아. 늙어간다는 건 <이유 없는 반항>에서 <저승에서 온 회상록>으로 넘어가는 거지.

매디슨 - 멋진 표현이네요.

알렉상드르 - 그렇지...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미 노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야.

매디슨 - 어느 시대든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잖아요...?

알렉상드르 - 오늘날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아. 그저 지구를 구하고 싶어할 뿐이지. 그리고 상황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군...

매디슨 - 그럼 당신은 세상을 바꾸는 데 성공했나요?

알렉상드르 - 아니,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많이 즐겼어.

매디슨 - 이제는 별로 웃고 있는 것 같지 않네요...

알렉상드르 - 보아하니, 너도 별로 웃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었으면 고양이랑 연애 중이지는 않았겠지.

매디슨 - 적어도 전 혼자가 아니에요.

알렉상드르 - 그리고 채식 키블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불쌍한 육식동물을 먹이며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매디슨 -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을 바꾸려면 지구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타이타닉 위에서 혁명을 일으켜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알렉상드르 - 아무튼, 난 내 세대에서 서른 살 전에 죽은 사람들이 부러워. 상상해 봐, 지미 헨드릭스와 재니스 조플린이 요양원에서 스크래블 한 판 끝내고 백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차라리 그런 꼴 보느니 죽겠어...

매디슨 - 그러지 말고 힘내세요...

알렉상드르 - 불행히도 문학은 그렇게 ‘룩앤롤’하지 않거든. 작가들은 대부분 침대에서 죽지.

매디슨 - 작가세요?

알렉상드르 - 네가 알 바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얘길 너랑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난 너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그는 총을 서랍 안에 넣는다.)

매디슨 -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알렉상드르 - 너도 내가 죽일 수도 있었어...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올 때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법이지... 정당방위를 주장했더라면,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을 거야... *(매디슨이 어지러워 보이자, 그는 눈치를 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괜찮아?

매디슨 - 죄송해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잠시 망설인다.)

알렉상드르 - 잠깐 앉아 있어, 내가 가져올게.

(그가 나간다. 매디슨은 즉시 생기를 되찾고 방을 둘러볼 기회를 엿본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에 담긴 여자의 사진을 들어 올려 살펴본다. 그러다 그가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오자 급히 사진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는 물을 그녀에게 건넨다.)

매디슨 - 고맙습니다...

(그녀는 물을 받아 한 번에 모두 마신다.)

알렉상드르 - 좀 나아졌나?

매디슨 - 네, 감사합니다...

(그는 조금 부드러워지려 노력한다.)

알렉상드르 - 이렇게 대접해서 미안하군... 난 더 이상 손님을 맞이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매디슨 - 그럼 당신도 혼자 사시나요?

알렉상드르 - 그렇게 보이냐?

매디슨 - 방금 하신 말씀으로 봐서는 자녀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알렉상드르 - 내가 자녀가 없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야?

매디슨 - 자녀가 있으신가요?

알렉상드르 - 없어... 그리고 요즘 세상을 보면, 자녀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매디슨 - 네...

알렉상드르 - 우리가 지구를 구하고 싶다면, 애초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매디슨 -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알렉상드르 - 그리고 생각해 봐.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가 아마도 살기 가장 좋은 나라일 거야...

매디슨 - 네, 그래서 제가 당신 나라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알렉상드르 - 너 프랑스인이 아니었어...?

매디슨 - 제 이름은 매디슨이에요. 저는 미국 사람이예요.

알렉상드르 - 그런데도 우리 말을 유창하게 하고, 악센트도 전혀 없군...

매디슨 - 제 할머니가 프랑스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몰리에르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죠. 저는 문학을 공부하러 소르본에 왔어요.

알렉상드르 - 그래서 내가 오늘 매디슨으로 가는 길에 널 만난 게 우연이라는 거군.

매디슨 - 당신 이름이 알렉상드르죠, 맞죠?

알렉상드르 - 어떻게 아는 거지?

매디슨 - 아래층 우편함에서 당신 이름을 봤어요. 알렉상드르 드라크루아... 혹시 그...

알렉상드르 - 화가? 전혀 아니야.

매디슨 - 작가요!

알렉상드르 - 너는 미국인인데 알렉상드르 드라크루아를 안다고? 프랑스에서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인데.

매디슨 - 과장이시네요... 알렉상드르 드라크루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의 명성은 이미 프랑스 국경을 넘어섰죠. 적어도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그래서?

알렉상드르 - 그래... 나야.

매디슨 - 정말요? 20 세기 문학의 여러 걸작에 서명한 전설적인 작가 알렉상드르 드라크루아가요!

알렉상드르 -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매디슨 - 수년간 은둔 생활을 하며 아무것도 출판하지 않았고 모든 인터뷰를 거절한 신비로운 작가... 정말 당신인가요?

알렉상드르 - 뭔가 말해 주는군. 너 이미 내 집에 몰래 들어오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 내가 틀렸나?

(그녀는 잠시 망설인다.)

매디슨 - 아니요, 인정할게요...

알렉상드르 - 그러니까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는 인터뷰를 얻기 위한 핑계였다는 거군.

매디슨 - 고양이 얘기는 사실이에요, 맹세해요... 하지만 제가 당신 집 맞은편으로 이사 왔을 때, 마음속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알렉상드르 - 일부러 내 집 맞은편 아파트를 빌려서 날 엿보려고 했던 건가?

매디슨 - 엿보이라뇨? 전혀요! 저는 당신 작품의 열렬한 팬이에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 당신과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당신 에이전트가 당신은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알렉상드르 - 그 말 중에 이해 못한 부분이 있나?

매디슨 - 대서양을 건너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당신 집 맞은편 아파트가 임대 중이어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알렉상드르 - 완전히 미쳤군! 경고하는데, 날 귀찮게 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뭘 바라는 거지? 기자인가?

매디슨 -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학생이에요. 뉴욕에서 당신 작품에 관한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당신 소설 대부분이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죠. 아시잖아요, 미국인들에게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도시예요.

알렉상드르 - 그런 진부한 이야기로 내 작품의 숨겨진 의미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매디슨 - 제 논문 제목이 궁금하세요?

알렉상드르 - 아니.

매디슨 - ***“알렉상드르 드라크루아의 허구적 세계에서 부재의 형상”**이에요.

알렉상드르 - 다 알아냈군... 내가 사람들, 너를 포함해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바로 그들의 부재야. 그래서 네가 나가줬으면 좋겠어.

매디슨 - 살아 있는 작가를 연구할 기회가 있다면, 그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해요.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요. 그의 삶을 알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알렉상드르 - 그건 실수야, 내가 장담하지. 작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작품만 연구하는 게 더 나아. 많은 위대한 작가들이 현실에서는 초라한 인물에 불과했거든. 완전히 형편없는 인간들이었던 경우도 있고. 예술가나 과학자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원래 천재들은 잘 알려져 봐야 이득이 없는 법이지... 내가 스스로를 천재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매디슨 - 당신의 겸손함은 이해하지만, 그래도요... **<라틴 지구 연대기>**의 작가와의 독점 인터뷰는 제 연구의 최고 업적이 될 거예요.

알렉상드르 - 그 책을 읽었나?

매디슨 - 바로 그 소설이 제가 파리에 와서 공부하게 만든 이유예요. 저는 그 책이 당신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알렉상드르 - 하지만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아니지...

매디슨 - 그 소설은 상당히 자전적인 작품일 것 같아요.

알렉상드르 - 말했잖아... 독자에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다고...

매디슨 - 그리고 당신이 수년간 작업 중인 그 신비로운 원고에 대해서는...

알렉상드르 - 난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아. 내가 완전히 잊히지 않고 옛날 책들이 조금이라도 팔리게 하려고 출판사가 만들어낸 전설일 뿐이야. 어쨌든, 인터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도, 그 누구한테도. (그는 위협적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간다.) 이제 당장 나가!

매디슨 - 안 나갈 거예요!

(그녀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의 결심에 놀란 듯 보인다.)

알렉상드르 -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나간다니?

매디슨 - 제가 인터뷰를 받기 전까지 당신이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인터뷰를 얻으려고 대서양을 헤엄쳐서라도 왔을지도 몰라요!

알렉상드르 - 그럼 네가 타고 온 페달보트를 타고 돌아가라.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녀는 다시 기절할 듯 흔들린다.)

알렉상드르 - 당신이 내 앞에서 기절한 게 벌써 두 번째군... 로맨스 소설을 너무 많이 읽은 모양이야, 아가씨. 요즘 시대에, 연극 외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아무 때나 반대당했다고 기절하지 않거든.

매디슨 -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는 망설이는 것처럼 보인다.)

알렉상드르 - 구급차를 불러줄까?

매디슨 - 아니요, 잠깐 앉아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알렉상드르 - 그리고 나서 떠날 건가?

매디슨 - 약속할게요.

(그녀는 앉아 숨을 고른다.)

알렉상드르 - 이미 물 한 잔 줬잖아... 브랜디 한 잔 줄까?

매디슨 - 저를 완전히 쓰러뜨리려는 건가요?

알렉상드르 - 안타깝게도 이미 늦었어. 바로 썼어야 했는데. 정당방위를 주장했을 텐데, 지금은 미리 계획한 걸 부정할 수도 없겠군...

매디슨 - 왜 집에 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렉상드르 - 원래는 침입자를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 보네...

매디슨 - 당신이 다른 작가들처럼 약간 사람을 꺼리는 성격이라고 해도... 우리 모두는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알렉상드르 - 네가 나한테 고양이를 키우라고 권할 것 같은데... 혹시 네 고양이를 떠넘기고 싶은 건가?

매디슨 - 고독이 당신에게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알렉상드르 - 고독이라... 그건 마치 커피 같아. 처음엔 약간 쓰게 느껴지지. 그러다 익숙해져. 그리고 나중엔 그 맛을 즐기게 돼. 결국 그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야.

매디슨 - 당신은 격언집을 써야 해요. 분명 잘 팔릴 거예요.

알렉상드르 - 그리고 나서, 혼자가 아니라는 건 뭘까? 부부로 살면서 해마다 같은 진부한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끔 만나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조심스럽게 피하는 것? 계단에서 이웃을 만나 날씨 얘기나 나누는 것? 고양이에게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말하는 것?

매디슨 - 그래도 글을 쓸 때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알렉상드르 - 그래서 글쓰기를 멈춘 거야.

매디슨 - 믿을 수 없어요.

알렉상드르 - 믿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날 혼자 두라는 거야...

매디슨 - 그럼 인터뷰는 절대 해주지 않겠다는 거군요?

알렉상드르 - 이제 할 말도 없어. 더 나쁜 건, 말할 사람도 없지. 어떤 날은 스스로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을 때도 있어.

매디슨 - 그건 슬프네요...

알렉상드르 - 그게 인생이지... 그리고 어쨌든 내 인생은 끝나가고 있어...

매디슨 - 제 인생도 어쩌면 끝날지도 몰라요...

알렉상드르 - 무슨 말이지?

매디슨 - 저 심장병이 있어요. 의사들은 제가 몇 년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어쩌면 몇 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꿈을 이루기 위해 프랑스로 온 거예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

(그는 그녀의 말에 명백히 충격을 받은 듯하다.)

알렉상드르 - 심장병이라니, 무슨 뜻이지?

매디슨 - 저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결함이 있어요. 제 심장은 너무 약해서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알렉상드르 - 그럼 당신이 가끔 힘들어하는 것도 그 때문인가?

매디슨 -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인다.)

알렉상드르 - 설마 나를 화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꾸며낸 건 아니겠지... 그래서 내가 인터뷰를 수락하도록 하려는 거야?

매디슨 -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알렉상드르 - 안됐군.

매디슨 -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알렉상드르 - 아니, 그렇지만 참 아이러니하군. 난 나이도 많고, 더 이상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끝내는 걸 고민 중인데... 너는 젊고,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네 심장이 널 배신하다니...

매디슨 -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저항해 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알렉상드르 - 그런데도 넌 여전히 웃고 있잖아...

매디슨 - 제 인생에 남은 몇 달이 제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알렉상드르 - 네 삶에 대한 기쁨이 널 우울하게 만드는군. 넌 의심조차 하지 않아?

매디슨 - 의심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 집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온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다.)

알렉상드르 - 정말 희망이 없는 건가?

매디슨 - 있어요, 이식만 받을 수 있다면요. 하지만 먼저 기증자를 찾아야 해요...

알렉상드르 - 내가 내 심장을 주겠다고 하면 어떨까? 난 더 이상 쓸모도 없으니... 내가 자살하고, 장기를 너에게 기증하는 거야...

매디슨 -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특히 심장은요. 페나 신장처럼 두 개 있는 장기도 아니잖아요.

알렉상드르 - 고환 같은 거 말이지...

매디슨 - 심장은 기증자가 뇌사 상태여야 해요.

알렉상드르 - 뇌사 상태? 가끔 내가 이미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닐까 싶을 때도 있어. 사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지...

매디슨 - 기증자는 사망해야 하고, 심장은 건강해야 하며, 빠르게 적출되어야 해요.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장기 이식 대기 명단은 엄청 길죠...

알렉상드르 - 듣자하니 중국에서는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한다고 하더군. 훨씬 편리하지. 이식 날짜를 정하고, 같은 날 사형을 집행하니 말이야.

매디슨 - 그건 끔찍해요...

알렉상드르 - 맞아, 하지만 그 덕분에 수혜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느긋하게 날아올 시간을 가지게 되지. 어떤 사람들은 관광까지 즐긴다더군. 물론 공짜는 아니겠지. 심장이 중국에서 얼마인지 모르겠군. 알아봤어?

매디슨 - 아니요...

알렉상드르 - 인터넷에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매디슨 - 고맙습니다.

알렉상드르 - 미안, 그런 농담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특히 너한테는. 하지만 결국 농담 말고 우리에게 남은 게 뭐 있겠어?

매디슨 - 그렇죠...

알렉상드르 - 하지만 방금 내가 한 말은 농담이라고 할 수 없지...

매디슨 - 사형수의 심장이든 당신의 심장이든, 그런 심장으로 살 바엔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그러니까?

알렉상드르 - 그러니까 뭐?

매디슨 - 제 꿈을 이뤄주지 않고 저를 그냥 보내실 만큼 잔인하신가요?

알렉상드르 - 꽤 고집이 세군, 안 그런가...

매디슨 -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알렉상드르 - 그런데 네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지?

매디슨 - 누가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겠어요? 이미 다 잊힌 작가와 인터뷰를 하려고 말이에요...

알렉상드르 - 결국 너도 알렉상드르 드라크루아가 다 잊혔다고 인정하는군.

매디슨 - 그럼, 승낙하신 건가요?

알렉상드르 - 네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의료 기록을 보여주면 말이지.

매디슨 - 죄송하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알렉상드르 - 네 집이 마당 건너편이잖아... 가서 가져와...

매디슨 - 제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했는데요. 조금 실망했어요.

알렉상드르 - 내가 인터뷰를 해준다면, 그건 시작일 뿐이야. 날 믿어. 난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 이거든. 곧 알게 될 거야.

(매디슨은 일어나 방을 둘러본다. 그녀의 시선이 낡은 타자기에 멈춘다.)

매디슨 - 아직도 타자기로 글을 쓰시나요?

알렉상드르 - 내가 쓴 모든 소설은 바로 이 기계로 작성했지. 하지만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 마.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매디슨 - 왜요?

알렉상드르 - 단어는 은행권 같아. 너무 많이 유통시키면 그 가치를 잃게 되지... 오늘날 소셜 미디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봐. 모두가 하루에 열 번, 스무 번씩 자기 생각을 공유하지. 모든 주제에 대해. 가짜 화폐의 홍수로 인해 진짜 화폐가 평가절하되는 거야. 단어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해.

매디슨 - 사람들이 수다 떠는 걸 막을 순 없어요. 예전에는 카페에서 하던 걸, 이제는 페이스북에서 할 뿐이죠. 하지만 훌륭한 작가들은 언제나 있잖아요, 당신처럼요.

알렉상드르 - 훌륭한 작가들은 더 이상 읽히지 않아. 인용될 뿐이지. 그것도 틀리고 마구잡이로. 같은 인용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완전히 의미가 비워질 때까지... 복사와 붙여넣기가 사고를 대체했어. 이모지가 감정을 대체했고.

매디슨 - 제 논문 결론 부분에서 당신을 인용해도 될까요?

알렉상드르 - 엘리트주의라는 비난을 받겠지. 특정 소수만이 표현할 권리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조용히 듣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할 거야.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모두가 조용해야 한다고 믿어.

매디슨 - 그럼 제안하시나요? 1 분간 침묵이라도?

알렉상드르 - 1 분이 아니라, 1 년. 1 세기. 1 천 년간의 침묵. 그럼 아마 우리의 말이 최근 소셜 미디어를 뒤덮은 언어 설사 이후 다시 의미를 되찾을지도 몰라.

매디슨 -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글쓰기를 멈춘 이유가 실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알렉상드르 -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지...

매디슨 -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으시네요...

알렉상드르 -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지...

(그녀는 책상 위 사진을 집어 든다.)

매디슨 - 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죠?

알렉상드르 -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매디슨 - 아름다우시네요.

알렉상드르 - 네가 정말 아프다 해도, 그게 내 사생활을 들춰볼 권리를 주는 건 아니야.

매디슨 - 아까 이곳에 들어왔을 때 바로 저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저 얼굴이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그녀에게서 사진을 가져와 한 번 보고 나서 제자리에 내려놓는다.)

알렉상드르 - 내가 아주 오래전에 사랑했던 여자야...

매디슨 - 당신이 히피였을 때요?

알렉상드르 - 사실, 난 그렇게 히피적이지 않았어... 새로운 아이디어에는 열려 있었지만. 그리고 가끔씩 대마초를 피우기도 했지. 하지만 내 건강을 신경 썼고, 이미 내 커리어에 대해 생각했어. 글을 쓰려면 어느 정도 편안함이 필요하거든. 훌륭한 작가가 되려면 약간 부르주아적으로 남아야 할 때도 있어.

매디슨 - 그녀는요?

알렉상드르 - 그녀는 자유로운 여자였지. 그녀는 현재의 순간만 생각했어.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갔어.

매디슨 - 어디서 만나셨어요?

알렉상드르 - 마당에서... 그녀는 내 집 맞은편 아파트에 살았어. 네가 지금 머무는 그곳. 뭐, 친구들과 함께 공유했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어. 음악가, 예술가들... 그 아파트는 마치 막심 르 포레스티에의 블루 하우스 같았어. 문이 항상 열려 있었거든.

매디슨 - 문이 열려 있었으니, 어느 날 그녀도 나갈 기회를 잡았겠네요. 제 고양이처럼요...

알렉상드르 - 그녀는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했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 당시 전통적인 부부 생활은 우리의 이상적인 삶이 아니었어. 적어도 그녀에게는 말이야.

매디슨 -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사랑했죠...

알렉상드르 - 그래. 그녀만의 방식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그녀가 나만 사랑한 건 아니었지...

매디슨 - 자유로운 사랑...

알렉상드르 - 우리는 부모님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건 옳았지. 하지만 그 외에 뭘 새롭게 만들어낼지는 몰랐어. 조금이라도 오래갈 수 있는 뭔가를 말이야... 우리는 현재를 살았어. 늙는 건 계획하지 않았지... 그리고 실제로 서른 전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나쁘게 늙어갔지. 늙은 비트족을 본 적 있나? 보기에 썩 좋지 않아, 장담하지...

매디슨 - 그래서, 그녀를 혼자 여행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알렉상드르 -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어... 그리고 그럴 권리도 없었지. 어느 아름다운 아침, 그녀는 떠났어...

매디슨 - 어디로요?

알렉상드르 - 아프가니스탄. 지금 들으면 비현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히피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여행지였어. 해시는 자유롭게 구할 수 있었고, 아주 저렴했거든. 여기서 1년 동안 일하면, 거기서 1년 동안 살 수 있었어. 그리고 동양에 대한 매혹이 있었지. 프랑스의 히피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은 낙원이었어.

매디슨 - 하지만 당신은 남았죠...

알렉상드르 - 난 이미 내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 미래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지.

매디슨 - 그래도 그녀와 함께 갈 수도 있었잖아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알렉상드르 - 물론이지... 그리고 그녀도 아마 나를 데려가는 걸 허락했겠지... 하지만 그녀의 꿈은 로맨틱한 여행이 아니었어. 더군다나 신혼여행은 더더욱 아니었지. 아시아는 그녀에게 있어 하나의 입문적 여정이었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정. 부르주아적 사랑의 틀에서 벗어난...

매디슨 - 그래서 당신은 파리에 남았고... 하지만 그녀를 잊지 못했군요.

알렉상드르 - 그녀가 언젠가 돌아오길, 아니면 적어도 나에게 어떤 신호라도 보내주길 바랐지... 엽서 한 장이라도... 하지만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어...

매디슨 -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나요?

알렉상드르 - 인터넷이 아직 없던 시절이었어... 누군가가 네 삶에서 사라지길 선택하면, 정말 사라지는 거였지.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

매디슨 - 지금이라도 찾아볼 수는 있잖아요.

알렉상드르 -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녀는 이제 죽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결혼해서 다섯 아이를 낳고, 몸무게가 120 킬로그램이 됐을지도 모르지.

매디슨 - 아니면 그녀는 아직 살아 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로 남아 있으며, 가끔 당신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알렉상드르 -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리고 네가 이 사진에서 본 아름다운 젊은 여자의 이미지를 간직하는 게 나아. 40년이 지난 지금의 충격을 상상할 수 있겠어? 우리는 스스로 늙어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이 늙어가는 건 아주 잘 보이거든, 믿어봐.

매디슨 - 제가 늙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알렉상드르 - 미안,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잠시 침묵이 흐른다.)

매디슨 - 고양이 울음소리 못 들으셨어요?

알렉상드르 - 아니... 여전히 못 들었어...

매디슨 - 아마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알렉상드르 - 그러지 않길 바랄 뿐이야.

매디슨 - 만약 제가 죽으면, 제 고양이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알렉상드르 - 제발, 넌 죽지 않을 거야! 게다가, 네 고양이가 너보다 먼저 죽을 거야. 내 생각엔 말이지... 고양이는 얼마나 살지?

매디슨 - 보통 15년 정도요.

알렉상드르 - 네 고양이는 몇 살이지?

매디슨 - 두 살이요.

알렉상드르 - 아, 그렇군...

매디슨 - 그래서요? 제 고양이를 입양할 생각 있으세요?

알렉상드르 - 네가 여기 들어왔을 때 내가 총을 머리에 대고 있었다는 걸 상기시켜줄게.

매디슨 - 바로 그거죠. 그 고양이가 당신이 자살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알렉상드르 - 매일 채식 키블을 먹이고 화장실 모래를 갈아주는 게 이유가 된다고?

매디슨 - 누군가를 돌보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아끼고, 필요로 하고, 당신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알렉상드르 - 나를 기다린다고? 난 집을 거의 나가지 않아, 특히 밤에는...

매디슨 - 아까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나요?

알렉상드르 - 어쨌든, 내가 널 부른 기억은 없는데...

매디슨 - 그래도 당신의 부름을 들은 것 같아요.

알렉상드르 - 사실 요즘 점점 희망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어.

매디슨 - 저와 이야기해보실래요?

알렉상드르 - 네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내가 지금 날 힘들게 하는 일들을 너한테 떠넘기기가 주저돼.

매디슨 - 전쟁이 이미 패배로 끝날 걸 알면서도 싸우는 것... 그게 진정한 용기가 아니에요?

알렉상드르 - 내가 용감하다고 말한 적 없어. 내가 너만큼 용감했으면 좋겠어.

매디슨 - 전 용감하지 않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뿐이죠. 당신과는 다르게요.

알렉상드르 - 나? 난 스스로 목을 매는 밧줄과 내 머리를 날려버릴 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

매디슨 - 맞아요... 정말 우울하네요...

알렉상드르 - 경고했잖아, 난 늙은 바보라고. 지금이 내 젊은 시절보다 더 나쁜 때인지는 모르겠어. 아마 지금은 더 명확히 볼 수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 하지만 명확함이라는 게, 대체로 낙관적이게 만들지는 않지.

매디슨 - 사실, 브랜디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알렉상드르 - 확실해?

매디슨 - 뭐, 어차피 무언가로 죽긴 해야 하잖아요.

(그는 브랜디 두 잔을 따른다. 그들은 건배를 한다.)

알렉상드르 -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미안, 또 실언한 것 같군...

(그녀는 미소 짓는다. 그들은 잔을 비운다.)

매디슨 - 죽은 자도 깨울 맛이네요.

알렉상드르 - 난 10 년 정도 술을 끊었어. 이 병이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술은 잘 숙성되지, 그렇지? 적어도 술꾼보다는...

매디슨 - 그런데도 맛이 좀 이상해요. 이거 정말 코냑 맛아요?

(그는 병을 들여다본다.)

알렉상드르 - 아마 맛을 거야... 하지만 코냑 맛이 정확히 어떤지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네...

매디슨 - 그 젊었을 때의 당신을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알렉상드르 - 어떤 젊은 시절?

매디슨 - 사진 속 그 여자를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아직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알렉상드르 - 네가 좋아했을지는 모르겠네.

매디슨 - 아마도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겠죠.

알렉상드르 - 적어도 야망으로는 가득했지.

매디슨 - 정말 친구가 하나도 안 남았나요?

알렉상드르 - 난 늙은이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 또래 사람들을 가능한 한 멀리해. 나 자신의 노쇠함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들과 계속 마주하고 싶지 않거든.

매디슨 - 몇 년 동안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걸 확신해요.

알렉상드르 - 그래서 날 취하게 만든 거야? 내가 털어놓길 바라고?

매디슨 - 작가는 글을 쓰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알렉상드르 - 좋아, 맞아. 계속 글을 썼어...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출판하지 않을 거야.

매디슨 - 왜요?

알렉상드르 - 말했잖아. 더 이상 읽히기 위해 글을 쓰는 게 아니야. 어쩌면 미래 세대에게는 읽히길 바라지만, 지금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매디슨 - 저에게도요?

알렉상드르 - 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할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매디슨 -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을지도 모르잖아요...

알렉상드르 - 우리가 둘 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외에?

매디슨 - 적어도 당신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그는 잠시 망설인다.)

알렉상드르 - 아주 개인적인 소설이야.

매디슨 - 자전적인 이야기군요.

알렉상드르 -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오토픽션'이라고나 할까.

매디슨 - 그래서 출판하기 싫은 건가요?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라서요?

알렉상드르 - 이 원고를 일기처럼 간직하고 싶어. 난 과시하는 걸 싫어하거든. 이걸 출판하면 사람들이 내가 늙어서 싸구려 로맨스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말할 거야...

매디슨 -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알렉상드르 - 내가 아직 그 정도의 지혜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

매디슨 -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알렉상드르 - 나에 대해 논문을 쓰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럴 가치가 없어, 믿어.

매디슨 - 제겐 중요한 일이에요.

알렉상드르 - 그런데 왜? 네 삶을 살아, 제발! 특히 지금 당장 끝날 수도 있는 삶이라면... 그리고 난 네 말을 믿지 않아. 그리고 아직도 그 의료 기록을 보여주지 않았잖아.

매디슨 - 저를 믿지 않는다면, 왜 저와 대화를 나누기로 하셨나요?

알렉상드르 -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정도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유가 뭔가?

매디슨 - 조금 복잡해요...

알렉상드르 -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군. 심장은 괜찮고.

매디슨 - 그냥... 제 심장 문제는 더 상징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알렉상드르 - 왜 그런 이야기를 했지?

매디슨 - 당신의 동정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저를 쫓아내고 싶어 했잖아요...

알렉상드르 - 지금이라도 쫓아낼 수 있어.

매디슨 - 하지만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알렉상드르 - 그 이유는?

매디슨 - 제가 당신을 흥미롭게 하니까요...

알렉상드르 - 심장 문제가 상징적이라는 건... 사랑의 상처라는 뜻인가?

매디슨 - 어떤 의미에서는요... 당신처럼, 저도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로 고통을 겪었어요.

알렉상드르 -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매디슨 - 곧 말씀드릴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그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어요.

알렉상드르 - 들어보지.

매디슨 - 이 원고를 읽고 싶어요.

알렉상드르 - 왜 너한테 그걸 맡겨야 하지?

매디슨 - 당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이걸 읽고 의견을 주길 원하니까요. 작가는 항상 읽히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죠...

알렉상드르 -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단 한 사람은... 40년 전에 내 삶에서 사라졌어.

매디슨 - 그 원고는 어디 있나요?

(그는 책상 위에 있는 파일을 가리킨다.)

알렉상드르 - 바로 저기 있어...

매디슨 - 봐도 될까요?

(그녀가 그것을 집으려 하자, 그는 그녀를 막는다.)

알렉상드르 - 안 돼!

(그녀는 잠시 망설인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치듯 지나간다.)

매디슨 - 그렇군요. 결국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정말 완고한 노인이네요. 스스로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세요...

(그녀는 떠나려 한다.)

알렉상드르 - 기다려...

(그는 망설이다가 원고를 집어 그녀에게 건넨다.)

알렉상드르 - 읽는 건 허락하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매디슨 - 들어볼게요.

알렉상드르 - 이 원고는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매디슨 - 제가 복사해서 당신 허락 없이 출판할까 봐 걱정되시는 건가요?

알렉상드르 -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녀는 파일을 받아 손으로 무게를 가늠한다.)

매디슨 -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알렉상드르 - 난 급하지 않아. 너는?

매디슨 - 저도 급하지 않아요.

알렉상드르 - 손님방이 하나 있어. 원하면 거기서 자. 요즘 거의 쓰지 않아. 내 친구들은 다 죽었거든...

매디슨 -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렉상드르 - 읽는 데 방해하지 않을게...

(그는 나간다. 그녀는 원고 읽기에 몰두한다.)

장면 전환.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매디슨은 여전히 원고를 읽고 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파일을 닫은 후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녀는 일어나서 마당 건너편 창문을 바라본다. 알렉상드르가 커피 두 잔을 들고 들어와 그녀 앞에 한 잔을 놓는다.

알렉상드르 - 여기 있어... 디카페인이라는 건 미리 말해두지. 이걸로 정신을 깨울 생각은 하지 마.

매디슨 - 고마워요.

알렉상드르 - 그런데 아직 다 못 읽었나 보군...

매디슨 - 방금 다 읽었어요...

알렉상드르 - 벌써? 그럴 리가 없어. 몇 페이지를 건너뛴 거겠지...

매디슨 -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어지는 침묵에 알렉상드르는 약간 걱정스러워 보인다.)

알렉상드르 - 네 생각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 특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더더욱...

매디슨 -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숨에 읽었어요. 밤새 한숨도 안 잤어요.

알렉상드르 - 그래... 그건 약간 안심이 되네... 하지만 내가 서스펜스 소설을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매디슨 - 이건 당신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이전 작품들에는 없던 인간미가 이 작품에는 담겨 있어요.

알렉상드르 -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군... 내 나머지 작품들에 대해서는 말아야.

매디슨 - 당신의 다른 소설들도 뛰어났어요. 하지만 이 소설은 감동적이에요.

알렉상드르 - 그리고 알아챘겠지? 주제가 너의 논문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걸.

매디슨 - 제 논문...?

알렉상드르 - "*알렉상드르 드라크루아의 허구적 세계에서 부재의 형상.*" 벌써 읽은 건 아니겠지?

매디슨 - 아니요, 물론 아니에요. 그리고 맞아요. 스무 살에 젊은 시절의 사랑이라는 유령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이 남자의 이야기는...

알렉상드르 -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아. 바로 자신의 젊음을 그리워하기 때문이지. 모든 '처음'에 대한 향수... 첫사랑에 충실해야 해. 비록 처음 사랑했던 여자에게 끝까지 충실할 수는 없다 해도.

매디슨 - 하지만 그건 위험해요. 과거에 갇혀 살 위험이요...

알렉상드르 - 어쨌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출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매디슨 - 제가 그렇게 말하면 출판하실 건가요?

알렉상드르 - 너는 내 작품의 전문가니까, 결국엔...

매디슨 - 저는 이 소설이 당신의 문학 경력을 되살릴 수 있다고 확신해요... 제 생각엔 공쿠르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에요.

알렉상드르 - 너무 과하지는 마. 기분 좋게 해주려는 건 고맙지만, 믿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지 않겠어...

매디슨 - 정말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알렉상드르 - 그리고 완전히 객관적이겠지, 물론.

매디슨 - 의심하시나요?

알렉상드르 - 모르겠어... 뭔가 너가 단지 시대에 뒤쳐진 작가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 파리에 온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잠시 침묵이 흐른다.)

매디슨 - 맞아요. 전부 진실을 말한 건 아니에요.

알렉상드르 - 심장병도 아니고, 고양이도 없고, 학생도 아니겠지...

매디슨 - 진실인 건 제가 미국인이며, 당신을 만나기 위해 프랑스에 왔다는 거예요.

알렉상드르 - 몇 주째 내 집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왜 이제야?

매디슨 - 어제 아침, 창문 너머로 당신이 천장에 밧줄을 걸고, 총을 꺼내는 걸 봤어요.

알렉상드르 - 밧줄을 걸 만한 곳을 못 찾았지.

매디슨 - 당신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어요. 당신을 알 기회도 갖기 전예요. 그래서 서둘러 당신 집으로 달려왔고... 즉흥적으로 행동했어요.

알렉상드르 - 아주 설득력 있었어. 너 배우가 되어야겠어... 하지만 알다시피, 삶에서도 연극에서도 커튼 뒤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해. 가끔은 그저 환상일 뿐이거든. 우리의 상상 속 환영의 투영일 수도 있고...

매디슨 - 밧줄이 당신이 자살하려던 게 아니었다고요?

알렉상드르 - 내가 단순히... 샹들리에를 걸려고 했다면?

매디슨 - 그럼 총은요?

(그는 서랍에서 총을 꺼낸다.)

알렉상드르 - 장난감일 수도 있지. 도둑을 놀라게 하려는 가짜 총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라이터라든가... *(방아쇠를 당기자 총구에서 불꽃이 나온다.)* 사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라이터지. 죽는 게 두려워서 담배를 끊었거든. 하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항상 담배 한 갑을 가까이에 두고 있어. 술도 끊고, 심지어 카페인도 끊었지. 이렇게나 건강을 신경 쓰고 산다니까...

매디슨 - 그럼 정말로 삶을 끝낼 계획은 아니었던 거군요?

알렉상드르 - 아직은 아니야, 어쩌면 욕망일지도 모르지. 솔직히 말하자면, 남아 있는 유일한 욕망이야.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욕망. 하지만 자살하려면 용기가 필요해... 그런데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 아니면 아직 그만큼 절망적이지 않은 걸지도 모르지. 어차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내 차례를 기다릴 뿐이지...

매디슨 - 그럼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오해였던 건가요?

알렉상드르 - 누군가가 대서양을 건너 단지 나 같은 작가를 인터뷰하려고 왔다는 게 잘 믿기지 않아. 난 우연도 믿지 않아. 그래서, 왜 여기 온 거야?

매디슨 -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이 원고의 첫 번째 독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알렉상드르 - 정말로 마음에 들었나?

매디슨 - 이걸 걸작이에요. 하지만 작은 의견이 하나 있어요.

알렉상드르 - 그럴 줄 알았어... 들어보지.

매디슨 - 결말이 그다지 설득력 있지 않았어요...

알렉상드르 - 맞아... 미완성된 이야기 같아... 마치 에필로그가 빠진 것처럼...

매디슨 -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알렉상드르 - 너도 글을 쓰나? 협업을 제안하러 온 건가? 사실, 난 슬슬 영감이 부족해지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미리 경고하는데, 내 책을 대신 써줄 대필 작가를 찾을 만큼 절박한 건 아니야.

매디슨 -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온 게 아니에요...

알렉상드르 - 그리고 그 논문 얘기도 거짓말이군. 단지 나와 문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런 연극을 벌인 건 아니겠지...

매디슨 -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알렉상드르 - 그럼 이유가 뭔가?

매디슨 - 방금 읽은 원고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마당 건너편 창문*... 왜 그런 제목을 붙였나요?

알렉상드르 - *마당 건너편 창문*... 그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창문이야.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살았던 곳이지.

매디슨 - 그리고 그녀가 떠난 이후 당신의 생각을 계속 사로잡았던 사람이네요.

알렉상드르 - 그녀가 언젠가 돌아오길 꿈꿨지. 언젠가 그녀가 오늘 너처럼 내 문을 밀고 들어올 거라고...

매디슨 -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두셨군요...

알렉상드르 - 가끔 마당 건너 창문의 커튼 뒤에서 그림자를 본 것 같았어. 네가 이사 왔을 때, 밤마다 불이 켜진 걸 보고 그녀일 거라고 상상했지...

매디슨 - 그냥 저였어요.

알렉상드르 - 네가 그녀와 조금 닮았어... 그래서 오늘 처음 너를 봤을 때 움찔했지. 순간적으로 그녀가 스무 살 때 모습으로 돌아온 줄 알았어. 그러다 그녀도 이제 나와 비슷한 나이가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매디슨 - 맞아요, 저 그녀를 닮았어요.

알렉상드르 - 설마, 네가 그녀의 유령이라는 건 아니겠지?

매디슨 - 아니요, 전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알렉상드르 - 하지만 뭔가 더 있잖아, 그렇지?

매디슨 - 네, 맞아요.

알렉상드르 - 그녀의 얼굴이 낯익다고 말한 이유가 뭐지?

(잠시 침묵이 흐른다.)

매디슨 - 전 그녀의 손녀예요.

(침묵이 이어진다.)

알렉상드르 - 그녀의... 손녀라고...?

매디슨 - 그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날 때 임신 중이었어요. 떠난 후 얼마 안 되어 알게 되셨죠.

알렉상드르 - 임신? 나와?

매디슨 - 네.

알렉상드르 -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매디슨 -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다른 시대였다고. 그녀는 당신에게 아이를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알렉상드르 - 난 아무것도 몰랐어.

매디슨 - 저도요, 적어도 최근까지는요.

알렉상드르 - 언제 알게 됐지?

매디슨 - 제가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당신과의 사랑 이야기를요...

알렉상드르 - 그럼 너는 내 손녀라는 거군.

매디슨 - 네, 저는 당신의 손녀예요. *(잠시 침묵)* 믿기지 않으세요?

알렉상드르 - 그래... 이상하게도, 네가 내게 했던 모든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이건 의심하지 않아.

매디슨 -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당신은 저에게 아무 의무도 없어요. 만약 그게 당신이 원하시는 거라면, 저는 처음 왔던 대로 떠날게요. 그리고 다시는 저에 대해 듣지 않으셔도 돼요.

알렉상드르 - 가지 말아줘, 제발.

매디슨 - 저 여기 있어요.

(잠시 침묵.)

알렉상드르 - 당시 그녀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매디슨 -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아버지로서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과 연락이 끊겼죠.

알렉상드르 - 그녀가 떠난 직후, 나는 이 아파트에서 이사 나갔어. 매일 그녀의 부재를 상기시키는 저 창문을 볼 수가 없었거든.

매디슨 - 그녀가 오래전에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편지는 “이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이라는 표시와 함께 반송되었죠.

알렉상드르 - 몇 년 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 바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려는 방법으로 말이지.

매디슨 - 하지만 그녀의 유령은 여전히 당신을 괴롭혔군요...

알렉상드르 - 물론 다른 여자들도 만나봤어. 하지만 내 평생 첫사랑의 기억 속에서 살았던 거지.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어...

매디슨 - 그녀는 당신이 결혼했는지, 당신도 가정을 꾸렸는지 알 수 없었어요.

알렉상드르 - 그렇지 않았지.

매디슨 - 당신이 유명한 작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당신에 대해 들었어요.

알렉상드르 -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서 문학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모든 걸 했어. 그리고 내가 유명해지면 그녀가 나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녀가 그때 나에게 연락할 수도 있었잖아.

매디슨 - 당신이 성공한 작가가 된 후에 그녀가 이기적인 이유로 돌아온다고 당신이 생각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녀는 그걸 걱정했어요.

알렉상드르 - 그러니까 내가 딸이 있는 거네...

(잠시 침묵.)

매디슨 - 그리고 제 병에 대해서도, 절반은 거짓말이었어요. 약한 심장을 가진 건 제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제가 태어난 직후, 심장 문제로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요.

알렉상드르 - 정말 안타깝구나.

매디슨 - 저를 키워주신 건 제 할머니였어요. 제가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제게 누가 제 할아버지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다시 당신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으셨어요.

알렉상드르 - 그래서 네가 대신 하기로 결심했구나. 파리에 오면서.

매디슨 - 이 모든 걸 편지나 전화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먼저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당신이 괴팍하다는 평판이 있었죠. 만약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뉴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알렉상드르 - 그런데 내가 널 그렇게 잘 맞이했기 때문에 결국 널 입양하기로 했나 보네...

매디슨 - 그리고 무엇보다 이 원고를 읽으면서, 당신이 결코 제 할머니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알렉상드르 - 잘 왔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맺음 지어줘서 고마워.

매디슨 -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알렉상드르가 당황한다.*) 괜찮으세요?

(*그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농담을 선택한다.*)

알렉상드르 - 이미 나이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라는 소식까지 듣다니.

매디슨 - 기쁘지 않으세요?

알렉상드르 - 물론 기쁘지... 하지만 동시에 내가 딸이 있었다는 것과,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말이야.

매디슨 - 하지만 여기 제가 있잖아요... 저는 제 어머니를 거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알렉상드르는 원고를 집어 든다.*)

알렉상드르 - 이 책을 출판하겠어. 내가 결코 알지 못할 딸에게 이 책을 헌정할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삶에 뛰어든 손녀에게도...

매디슨 - 문은 열려 있었잖아요...

알렉상드르 - 그래도 이 소설에 진짜 결말이 필요해.

매디슨 -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알렉상드르 - 네가 더 많은 놀라움을 줄 여력이 내 심장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구나.

매디슨 - 사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알렉상드르 - 그래, 말해봐. 이제 더 놀랄 것도 없을 정도니까...

매디슨 - 제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세요.

알렉상드르 - 지금은 어디에 사시는데?

매디슨 - 뉴욕이요.

알렉상드르 - 그럼 그녀에게 내 안부와 함께 따뜻한 키스를 전해줘...

매디슨 -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알렉상드르 - 네가 날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거야?

매디슨 - 제 할머니도 같이 왔어요. 지금 마당 건너편 아파트에 계세요.

(잠시 침묵. 그는 분명히 당황한 기색이다.)

알렉상드르 - 이제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매디슨 - 아직도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예요... 그리고 당신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책도 전부 읽으셨고요...

알렉상드르 - 그런데도 작가의 삶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으셨군.

매디슨 - 당신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알렉상드르 - 그녀는 이 소설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야.

매디슨 - 네, 하지만 아직 이 소설은 읽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알렉상드르 - 여전히 사랑해... 이 책이 그 증거야...

(그는 관객 쪽, 마당 건너편 창문을 바라본다.)

매디슨 - 그래서요? 제가 할머니께 오시라고 말씀드릴까요?

알렉상드르 - 그녀가 나를 찾으려고 대서양을 건넜는데, 내가 복도로 건너가는 것쯤이야 해야 겠지...

(알렉상드르는 매디슨에게 키스한다.)

매디슨 - 혼자 다녀오세요. 보시면 알 거예요. 마당 건너편 창문 너머에는 거의 변한 게 없다는 걸요. 그리고 문도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는 퇴장한다. 매디슨은 창문 쪽을 바라보며 남아 있다.)

암전.

끝.